지혜의 보고 佛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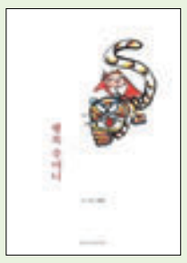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7.27~2017.8.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입문(2017년 개정판)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6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2	불화의비밀	자현	조계종출판사	7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3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8	물흐르고꽃은피네좋은때를놓치지않고사는법)	금강	불광출판사
4	오직한생각	종범스님	한생각	9	꽃도꽃피우기위해애를쓴다	정목	수오서재
5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10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부처 눈으로 본 세상 禪書畵로 담다



선서화 시집 〈행복 주머니〉

글 · 그림 수안 스님
맑은소리맑은나라 펴냄
1만7천원

禪서화가 수안 스님이 선서화 시집 〈행복주머니〉를 새롭게 출간했다. 책 소개를 부탁하자 수안 스님은 〈화엄경〉을 언급했다. 책 〈행복주머니〉에는 도반, 입동, 행복한 빈손, 여래화, 어머니, 아버지, 큰 스님의 수선화, 나 그리고 세월호 등 일상생활 가운데 쉽게 접하는 소식과 물건 그리고 사람들이 주제다. 저자는 "부처님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바로 화엄경이다. 온 세상의 만유개불이다. 즉 부처님 아닌 것이 없으니 어머니도 부처요, 도반도 부처며 겨울에 내리는 차가운 서리도 부처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선서화 집 〈행복주머니〉는 "부처님이 우리 중생을 향한 사랑을 순수한 언어로 그리고 극진함으로 담아 두었다"고 출간 취지를 덧붙였다.



〈행복 주머니〉를 펴낸 수안 스님이 선서화를 그리고 있다.

도반, 어머니, 세월호 등 일상소식, 사람들이 주제
"꽃 중에 제일 예쁜 꽃은 사랑하는 사람 미소띤 얼굴"

"꽃 가운데/ 제일 예쁜 꽃은/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짓는 얼굴" 시화집 〈행복주머니〉 가운데 '화중화(花中華)'라는 제목의 시다. 짧고 단순하지만 저절로 행복해진다. 사랑하는 이의 미소로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화엄경〉은 온갖 꽃으로 장엄하게 장식한다는 뜻의 '잡화엄식(雜華嚴飾)서 나온 말로 '잡화장엄(雜華莊嚴)'을 줄인 말이다. 그래서 〈화엄경〉을 〈잡화경〉이라고도 한다. 수안 스님은 시 '화중화'에서 꽃 가운데 제일 예쁜 꽃이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짓는 얼굴이라고 노래했다. 그리고 이번에 펴낸 선서화 시집 〈행복주머니〉를 "부처님의 안목으로 본 화엄경의 세상이다"라고 재차 설명한다. 곧 부처님의 눈으로 본 우리 중생은 꽃 가운데 가장 예쁜 꽃이란 것이다. 부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길이며 고백이다.

시와 함께 주목할 것은 수안 스님의 선서화(禪書畵)다. 시 한편에 선서화 하나가 장식되어 조화를 이뤘다. 수안 스님의 그림은 화려하되 순수하고 거침없되 담백하다. 스쳐보면 어린이의 장난기 가득한 그림 같고 선의 눈으로 보면 군더더기 없는 법문으로 깊이가 한량없다. 스님은 자신의 그림을 '현중현(玄中玄)'이라 표현했다. 즉, 선사의 '할(喝)'과 '내리치는 몽둥이' 처럼 언어도 학문도 떠난 경지란 것이다. 수안 스님의 은사인 불화장 석정 스님이 쓴 '조도현로(鳥道玄路)'가 떠올랐다. 새의 길(道) 처럼 허공 속에서 자유롭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처럼 투명하게 가벼우나 아득하게 깊은 도의 길을 일러준다. 이화입도선화일치(以畵入道 禪畵一致), 그림을 통해 도의 경지에 오르며 그림과 선(禪)이 일치한 세상을 평생 꾸려온 결과다.

현재 수안 스님은 통도사 인근 암자 문수원에 주석한다. 1940년 경남 통영서 출생했으며 1957년 불화장 석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4년 통도사 월하 스님에게 비구계를 수지하고 이후 통도사 송광사 백련사 묘관음사 등에서 정진했다. 1977년 이리역 폭발사고 때 이재민돕기 선화전을 열면서 주목 받았다. 이후 파리 초대전, 유럽순회전 등 유럽과 러시아, 남미 등에서 전시를 가져 한국 불교 문화를 알렸으며 특히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내놓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성미 기자

향곡 스님 '진면목' 70편 일화로



봉암사의 큰 웃음

법념 스님
(그림 서주 스님)
답게 펴냄
1만 5천원

"니는 밥은 잘 묵나?" "아니오, 오전 불식합니다." "야, 니도 대데 빠-ㅈ네(덜 떨어졌네). 밥은 거르지 말고 잘 무야 하니라." "밥 안묵는 기 무슨 공부가?"

현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은사이자 1940년대 후반 성철 · 자운 · 청담 스님과 함께 '봉암사 결사'를 이끈 선지식 향곡 선사(1912~1979)는 평소 식생활이나 식습관은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실제로 선방서 누군가가 아침이나 저녁을 안 먹는다고 하면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다.

"공부를 힘써 할라 카몬 뭐든 동묵어야 되니라. 하라는 정진은 안하고 묵는거 갖고 야단을 지기네. 허허."

경주 흥륜사 회주 법념 스님〈사진〉이 1972년 출가 직후 부터 3년여 동안 부산 묘관음사서 시봉한 향곡

저자, 1972년부터 3년간 모셔
인간적 풍모, 가르침 등 소개

스님에 관한 70여 일화를 생생히 엮어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제목은 〈봉암사의 큰 웃음〉이다. 저자는 "큰 스님은 공부하기 위해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먹고도 잘 졸지 않고 버틴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라 공부에 하나도 보탬이 안된다고 단단히 못을 박았다"고 회고했다.

그동안 향곡 선사의 도반인 성철 스님의 가르침과 일화에 대한 내용은 제자 원택 스님에 의해 많이 알려졌지만, 향곡 스님에 대한 저술은 거의 없었다. '죽으면 사리도 안 남길 것이다' 라는 수행자적 단호함에 제자들은 엄두를 내지 못했다. 입적 후에는 변변한 영정 사진하나 없어 제자들이 애를 먹을 정도였다.

저자인 법념 스님은 "불조 법맥 78조 이신 향곡 대선사는 일찍이 깨달음을 얻어 젊은 시절부터 선풍을 드날린 분이다. 사자의 풍모와 천성을 갖추고 한번 화두에 들면 삼칠일(21일) 동안 무심삼매에 들어 침식을 잊고 확철 관통하신 대선사"이라며 "아직도 많은 이들의 그리움 속에 남아 계신 향곡 큰 스님의 소박한 일상 이야기들을 통해 대도인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살피고 배우며 다시 한 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출간 취지를 피력했다.



이번 책을 펴내기 위해 법념 스님은 경주 동리목월문학관서 고희를 훌쩍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글쓰기를 직접 배웠다. "50년이 가까이 지났어도 아직도 제 기억 속에는 큰 스님의 가르침이 선한데, 일반인들에게는 관련 저술이 없다보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게 제자된 도리로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억을 더듬어 글을 쓰려고 보니 쉽지 않았지요. 그래서 글쓰는 법을 제대로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책 속에는 향곡 선사의 인간적 풍모를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소개했다. 가령, 신도들이 보내준 속옷과 양말 등을 모았다가 한 번씩 대방출하는가 하면, 동네 노인들과는 잘 어울리면서도 관공서 사람만 오면 '없다 해라' 며 만나지 않는 등 격식을 원하지 않았다.

법념 스님은 "향곡 스님은 수행과 공부를 하는데는 엄격하신 분이었지만, 어느 누가 어떤 잘못을 해도 일단 참회를 하면 다시는 거론 하지 않으셨을 만큼 너그러운 분이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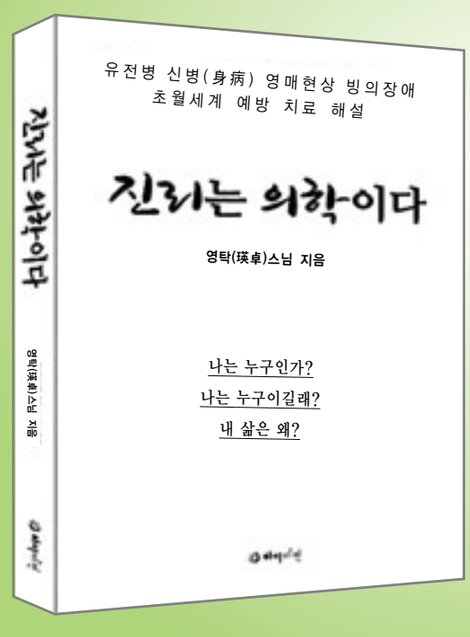
불교도서, 명상음반,
불교용품 전문
운주사



미아리고개
• 성신여대
아리랑고개
• 4호선 성신여대입구 3번출구
동일하이빌 지하1층 운주사
• 성북구청

www.unjusa.com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Tel. 02-3672-7181

진리는 의학이다!
천불사 영탁스님이 세계 최초로 중생제도 대원력 서원을 성취한
불설초월세계진여자성본원력방편보살도!
조상영가 왕생극락 시킬 수 있는 방편 대공개!



값 15,000원 | 신국판 | 261쪽 | 하이비젼

불설초월세계진여자성본원력방편보살도는
삼계사생육도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의
잠재의식 다겁다생의 업보를 해체 분리
파괴 소멸시켜 해탈하는 초월세계
우주진리법 입니다.

신병(身病), 영매현상, 빙의장애는
완치될 수 있고, 유전병도
예방 치료 됩니다.

전국 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십시오.

■ 문의 : 천불사 053)624-2272, 053)624-2275